



## “일괄제시안 없는가? 중앙교섭 결렬 선언한다”

### 10차 중앙교섭, 사측은 노조 요구 부정 ... 7월 2일 조정신청, 5~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결국 자신의 본색을 드러냈다. 금속노조는 2021년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6월 22일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10차 중앙교섭을 열었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한국 전체가 조합이 생각하는 산업전환 흐름으로 가는지 의문이다.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 라고 밝혔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조합이 요구하는 내용은 금속 산별협약에 이미 많이 들어있다” 라며 “금속 노사공동위에서 조금 더 내용을 고르고 다루자” 라고 제안했다. 박 직무대행은 기후위기 공동선언 취지는 원안 수용하지만, 세부 항목 가운데 산업전환협약 내용과 겹치는 게 있어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형 사용자협의회 회장 직무대행은 “조합이 요구하는 건 공동결정이다. 공동으로 참여, 협의해 무얼 하자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게 포인트다” 라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전 세계에 사례가 있느냐, 이항구 박사가 설명한

노사 공동 선진사례가 다 결정한다고 설명 했나? 나는 그렇게 안 들었다” 라고 강변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조합은 한국에 없는 공동결정법을 제정하자고 말하고 있다. 그 법은 결정·집행·점검을 공동으로 하자는 법이다. 사용자협의회는 부담스럽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라고 속내를 드러냈다.

박근형 직무대행은 “위원장의 제안처럼 금속 노사가 다루는 내용이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인지 물어보자. 회사운영의 모든 부문을 공동 결정 하자는 요구를 완성차, 중앙교섭 불참사업장, 다른 부품사, 제조업 사업장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자” 라고 우겼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발언에 전혀 공감할 수 없다. 발언을 복기해보라. 그동안 교섭에서 제출한 제시안, 발언과 전혀 포커스가 맞지 않는 발언이다” 라고 비판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사용자협의회 오늘 발언은 경총의 시각인가” 라면서 “사용자협의회는 노조의 산업전환협약 요구가 정말 인사·경영권 침해라고 보느냐. 그동

안 공감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 라고 질타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현대자동차 사측은 신규 차종 생산 전에 대의원회와 생산계획을 공유한다. 배치전환, 컨베이어 운영속도조차 상의한다” 라며 “현장과 노동조건에 관한 인사·경영상 내용을 협의한다. 수시로 회사가 요구해 논의한다” 라고 설명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1년 이상 준비했다. 사용자협의회가 일괄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노조는 중앙교섭 결렬을 선언한다” 라고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끝냈으면 했는데 반복하는 관례가 안타깝다” 라며 “사측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두고 일괄제시안을 내달라. 사용자협의회 인식은 경총의 인식은 아니었으면 한다” 라고 당부했다.

금속노조는 오는 7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2021년 임금·단체교섭 일괄 조정신청을 하고, 7월 5일부터 7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다.